

2016년 9월 18일(주일) 찾아오신 예수님(6) “목마름을 해소하시는 주”(요 4:21-30)

<도입>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Bi9AyBtWq9o>) 의 마지막 멘트: 중독의 반대는 sobriety(맑은 정신)이 아니라 connection(서로 연결됨)이라는 말이 매우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중독과 집착을 영적으로 말하면 죄입니다. 인간의 죄란 단절과 소외가 뿌리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무관심, 무정함, 무시, 거절, 따돌림, 험담, 비난, 배척, 버림, 폭력, 살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죄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질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중독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서로 연결됨, 통합**이라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에 있습니다.

[1] 다른 차원의 삶: 진정한 예배로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남편 이야기가 집착과 죄의 차원의 것이라면 이것을 넘어서 ‘영과 진리’의 예배 차원도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차원은 모두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

집착과 죄의 차원에 머무르는 삶만 살게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침투하셔서 내가 집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면 집착과 죄의 세력은 서서히 시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하심의 열매가 내 삶에 열리게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가 그 행하심에 반응하는 교통이 있습니다.

<여인의 질문>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 질문합니다(20 절). 여인의 질문은 이런 질문들과 같습니다. 예배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교회당은 어디에 세울까? 어떤 예배 형식이 좋은가? ... 그러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대강 또는 막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와 형식은 속한 문화권 속에서 상식적으로 모두가 잘 맞추고 동의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단, 하나님과의 교통을 돕는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의 내용>

예배의 본질이 교통이라면 교통의 중요한 요소는 영과 진리입니다(신령과 진정, 24 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초월적 차원에서 존재하십니다. ‘진리’라는 말은 성령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는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 안에서”란 어떤 뜻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의 사랑의 역사를 창조, 완성시킵니다. 성도는 이 역사에 초청받습니다. 진리의 시금석은 사랑입니다. 로맨스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찾고 만나고 사랑과 기쁨이 동반되는 행위입니다.

[2] 예배의 축복: 공동체

테니스를 애호가들이 더욱 풍성한 모임으로 발전되는 것을 봤습니다. 무언가에 매료된 사람은 혼자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에 매료되면, 베푸신 은혜가 좋아서 그 자리에 혼자 머물지 못하여 함께 모이고, 나누는 모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람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모두 일하게 만드는 전략적이고 인위적 체제를 세워(공산주의) 공동체를 이루면 서로 통할까요? 아닙니다. 참 공동체는 먼저 통하고 이루어집니다.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소외되었던 여인은 참 예배의 의미를 알고나서 자기를 배척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난 예수(그리스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씩 물려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도 육적 영적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을 해소해줄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하니, 예수에 대한 호감과 삶의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목마름은 공동체를 통해 예수에 대한 진가를 경험할 때 해결됩니다. 죄와 중독을 이기는 힘을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중차대한 영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각 개인이 얻어야 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얻은 경이와 기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는 죄를 없애는 것이 일차 목적이 아닙니다. 더 좋은 차원(예배)을 쫓아 사랑과 기쁨의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죄를 쫓아(집착과 중독에 팔려서) 사는 힘이 무력해집니다. 죄와 집착을 먼저 없애야 더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맺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생수, 하늘의 생명입니다. 성도는 그 생명의 비밀을 캐내어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영과 진리, 즉 성령의 사랑의 역사를 쫓아 예배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루어지는 참 공동체로부터 목마름이 해결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지금까지 나는 죄와 집착의 문제와 어떻게 싸워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영적 싸움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야 함을 느낀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참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참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정적 측면이 사실이라고 해서 요원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 공동체의 씨앗을 길러 가기 위해 '내가' 애써야 할 바를 말씀해 봅시다. 나는 희망을 보고 애쓰고 있습니까?
3. 공동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교회가 항상 제대로 안 돼...' 등..), 말은 옳을지라도 실질적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적과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